

2019 새 설계

신 우 철 완도군수

“완도 백년대계 책임질 해양치유산업 추진 원년으로”



“새해를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치유산업이 완도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올해 군정을 ‘고기가 물을 만난다’라는 사자성어 ‘어어득수(如魚得水)’로 대신했다.

신 군수는 이를 위해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해양치유전문병원과 해양치유단지 조성, 민간 분야에서는 해양치유리조트와 해양바이오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분야에서는 해양치유리조트·해양바이오연구소 유치와 더불어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체육인 교육센터 및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건립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신 군수는 말했다.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수출 중심의 산업형 박람회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국제 행사 승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완도가 전국 제1의 수산군인만큼 해외시장 개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각국에 시장 개척단을

해양치유전문병원·치유단지 조성
품격 높은 생태 휴양관광도시 조성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파견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예정이다.

신 군수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으로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직거래 유통센터를 통해 대도시에서도 완도 수산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을 해조류까지 넓혀 완도산 수산물의 차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백신 공급 및 선 어허 가공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어류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군수는 “해조류 육종 연구지원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해양치유산업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해양, 섬, 갯벌, 숲 등이 아우러진 완도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순신과 진린 장군의 선양 사업, 신지 명사십리 블루 플래그 인증 획득 등을 통해 완도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 군수는 “완도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 도시로 품격을 높이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극복하고 비상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은 생산유통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표 소득 작물인 유자, 비파와 황칠, 동백 등에 대한 부가가치를 제고해 이를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장애인·다문화가족·저소득층을 위한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공공 의료기관 진료비 감감, 홀몸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7개 도서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무료 건강 검진, 군민 안전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해양치유산업 육성
-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과 기후변화 대비 적응 체계 구축
- ▲충충한 그물망 복지와 안전한 완도 건설
- ▲품격 높은 생태 휴양 관광도시 조성
- ▲쾌적한 청정 환경 조성
-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보합 확대 운영 등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9년 사업비 1834억원을 확보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의 2단계 구간 조기 착공과 구도-소안간 연도교 및 금일-약산간 연륙교 사업 등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과 소통의 자리를 확대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군민이 늘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살 수 있는 곳, 살기 좋은 완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목포시, 시립예술단 활성화 나선다

단원 충원·임금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 시행키로

목포시가 올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시립예술단 사기 진작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20일 “2013년 이후 침체에 빠진 6개 시립예술단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예향 목포의 이미지에 걸 맞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단원 충원과 임금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밝힌 시립예술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시립교향악단은 정원 80명에 현원 54명, 무용단은 정원 50명에 현원 9명, 합창단은 정원 80명에 현원 23명, 소년소녀 합창단은 정원 80명에 현원 35명, 연극단은 정원 30명에 현원 6명으로, 국악원을 제외한 6개 시립예술단 단원이 정원 대비 40%선에 불과하다.

특히 무용단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 8명의 단원으로 정기공연을 펼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공연 때마다 타 지역 무용단 등과 협연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교향악단도 실정은 마찬가지다. 객원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수준 높은 공연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경우 상임 지휘자 없이 3

명이 돌아가면서 지휘를 맡는 3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관리와 통솔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원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인건비도 타 지역 예술단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6개 시립예술단의 인건비는 전남 도내 평균의 71%선에 머물고 있다. 교향악단은 80%선인 반면 나머지 예술단은 63%선에 그쳐 예술단 간의 임금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6개 시립예술단 연간 예산이 2017년 35억에서 2018년 31억으로 줄어들면서 공연수당이 확보 안 돼 잦은 대체 휴무로 인해 연습 부족과 실력저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목포시는 우선 정상 공연을 위한 최소한의 단원을 충원하고 인건비 인상과 공연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성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충원규모는 무용단 5명과 교향악단(트럼펫, 트롬본, 오보에, 타악기) 5명 등 10명 선”이라며 “교향악단과 국악원은 임금을 1.8% 인상하고 기타 예술단의 인건비도 교향악단의 85%수준으로 인상해 단원들의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립예술단원들은 “미흡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 7년만의 충원”이라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설명절 수산물 수요 증가 대비 불법어업·유통 근절 특별단속 서해어업관리단 2월 1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불법어업과 유통행위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되며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 및 어리물고기 불법포획과 김 양식장의 유해화학물질(무기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우범항·포구, 수협위판장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법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에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업 실태조사를 위해 채용된 명예어업조사원과 목포 지역 수산시장을 찾아가 불법수산물 유통 근절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김육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어업과 불법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준법조업과 올바른 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kwangju.co.kr

전국 유일 목포 세라믹산단 기업 입주 잇따라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센터 역할 톡톡 10여년간 기반 구축 마치고 기지개 펴

전국 유일의 목포 세라믹산단지가 10년 간의 기반 구축 사업을 마치고 기지개를 펴고 있다.

20일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조성된 목포시 세라믹산단은 행남자기와 조선내화를 주축으로 한 전통세라믹 산업 구조에서 반도체 공정부품·LED형광체 등 첨단세라믹 산업구조로 고도화 작업을 10년간 진행했다.

그 결과, 첨단세라믹산업은 연평균 매출이 10% 이상 성장, 지난해 매출 9300여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통세라믹 매출을 역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성장에는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을 톡톡히했다.

세라믹센터는 연구개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형 입주기업동 18실(각 60㎡), 양산테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장형 산업화지원동 총면적 2840㎡를 보유하고 있다.

입주기업동에는 80여종의 시험생산분석장비 등을 갖춰 60여개 기업이 이를 활용, 7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80여원을 들여 일괄 시험제작 공정 77종을 구축한 시험제작동은 가동률 55%, 장비 임대 수익금 7억원을 올리고 있다.

세라믹센터의 강점은 입주기업이 센터에 들어와

공용실험실에서 기술개발, 시험제작 등에서 시제품 제조, 사업화지원 등에서 시험생산라인 운영, 인근 세라믹산단에서 제품 양산 등의 일괄 서비스를 받아 최첨단 세라믹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스톱구조라는 것이다.

연구개발단계에서 사업화단계로 넘어가는 스케일업 과정을 통해 제품 양산에 성공한 ㈜세원하드페이싱(전북), ㈜삼화양행(서울), ㈜포스포(광주) 등이 목포 세라믹산단에 양산공장을 건립했다. 400여대 투자규모에 100여명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코머스(전남), ㈜에스바이오폴드(서울), ㈜메카로(경기) 등 3개사도 분양계약을 마치고 공장을 착공하거나 착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6개사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이어서 세라믹산단은 250억원 투자 규모에 15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세라믹산단의 기업집적화는 지역경제활성화로 낙후된 목포지역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광진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장은 “기술개발 지원과 사업화, 상용화 지원으로 세라믹산업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게 앞으로 스마트공장화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